

간호대학생의 전학급동료교수학습이 학업성취, 셀프리더십 및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효과

정인숙
초당대학교 간호학과

Effects of classwide peer tutoring on academic achievement, self-leadership and interpersonal ability of nursing students

In-Sook Jung
Department of Nursing, Choda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10회의 전학급동료교수학습이 간호대학생의 학업성취와 셀프리더십 및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효과 확인을 위한 원시실험연구로, 수집된 자료를 SPSS/WIN 19.0으로 Mann-Whitney U와 Kruskal-Wallis 검정 결과, 변수의 평균 순위값의 영향요인은 입학동기였다. Wilcoxon Signed Ranked Test 결과, 실험처치 전후 전학급동료교수학습은 학업성취에 유의한 효과가 있었고($p<.001$), 셀프리더십의 하위영역 중 인지적 전략과, 대인관계능력의 하위영역 중 관계촉진의 평균순위값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20$; $p=.040$), 셀프리더십과 대인관계능력 간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r=.296$, $p=.041$). 본 연구 결과 전학급동료교수학습은 간호대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향상시켰고, 셀프리더십과 대인관계능력에 효과가 있는 중재로 볼 수 있으나, 대상자 수를 확대하고, 대조군을 설정한 유사실험연구로 실험결과를 재확인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주제어 : 간호대학생, 전학급동료교수, 학업성취, 셀프리더십, 대인관계능력

Abstract This is a primitive experimental study to find effects of 10 times classwide peer tutoring on academic achievement, self-leadership and interpersonal ability of nursing student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Mann-Whitney U and Kruskal-Wallis test using SPSS/WIN 19.0, the motive of admission was the factor affecting the most mean ranks related to general characteristic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academic achievements, cognitive strategy, and promoting relationships($p<.001$; $p=.020$; $p=.040$), and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elf-leadership and interpersonal ability($r=.296$, $p=.041$) in Wilcoxon Signed Ranked test. As results of this study, the classwide peer tutoring could be applied in nursing classes for enhancing students' competence, but the researcher suggests further researches with wider range of subjects and setting control group.

Key Words : Classwide peer tutoring, Academic achievement, Self-leadership, Interpersonal ability, Nursing students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 시기는 사회인으로서의 준비과정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미래를 설계해나가면서 성숙한 성인기로 연

결되어야 한다[1]. 특히 간호대학생들의 경우 다 학과 대학생들과는 달리 간호학과 입학 후 고등학생 시기의 계열과는 관계없이 간호학전공을 위한 다양한 기초과학과목을 이수해야 하는데, 간호학과 입학 전 과학과목의 학습은 기초과학성적에 영향을 미치고, 기초과학성적은 간

*Corresponding Author : In-Sook Jung(irisjung@cdu.ac.kr)

Received July 30, 2018

Accepted August 20, 2018

Revised August 9, 2018

Published August 31, 2018

호학 학업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간호대학생의 미비한 학업성취로 학업 부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간호학교육과정에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중재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2,3].

이러한 잠재적인 문제들은 간호대학생들이 스스로의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고 동기부여하면서 자기주도적인 삶에 임하는 긍정적인 셀프리더십의 강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1,4]. 자기 스스로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내면의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셀프리더십은 간호학 이론학과목의 학습 뿐 아니라 간호실무에서 업무수행이나 직무만족을 통해 업무성과 산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간호학생들의 셀프리더십 함양을 위한 교육은 필수적이라 하겠다[4].

또한 간호대학생들은 학과 교육과정 중 필수 교양학 과목과 기초과학학습 후 간호학전공학습과정에서 전문적지식습득이라는 부담감 외에도 교내임상실습 후엔 실제 임상상황에 접하게 되는데, 대상자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간호직 이외에도 타 직종 임상요원들과의 대인관계를 맺으며 적응해나가야 한다[2]. 이 때 성숙한 대인관계의 기초를 구축하지 못한 경우 심리적 혼란은 물론 이론과 실기를 겸해야 하는 간호학 이수에도 큰 장벽이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5,6].

간호대학생들의 이러한 필요를 위한 중재방안의 하나로, 구미 각국의 의학이나 간호학계에서 이미 적용되고 있는 동료교수학습법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 학업성취도가 낮은 일부 장애학생의 교육이나 실기과목에서 적용되고 있지만, 간호학계에서 이에 대한 연구가 흔하지 않으므로 실제 적용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7].

교수자의 강의만으로 이루어지는 수업과는 달리 동료교수학습은 동료학생이 다른 동료를 가르치는 학습법으로, 동료교수자는 스스로 학습자료를 준비하고 구성하여 가르침으로써 학습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동료학습자는 친근한 동료교수자로부터 가르침을 받음으로 부담없이 질문하며 학습하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스스로 학습과정을 조직화하여 참여함으로써 서로간의 의사소통과정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인간관계를 맺게 된다. 동료교수학습 중 전학급동료교수는 강의실 내의 모든 학생이 4~5명으로 구성된 집단에서 교수자와 학습자의 역할을 하는 학습법으로, 같은 시간과 공간에서 모든 학생이 참

여하게 된다[8]. 이 학습법을 적용한 연구에서 실제의 교수자에 의한 학습에서보다 흥미있는 학습이 유도되었고 참여자들의 리더십 향상되었다는 보고가 있다[9].

이에 본 연구는 전학급동료교수학습법을 적용하여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 셀프리더십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중재프로그램 개발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1.1.1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 셀프리더십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전학급동료교수학습법의 효과를 조사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다음의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 전학급동료교수는 간호대학생의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 전학급동료교수는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 전학급동료교수는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2. 본론

2.1 연구방법

2.1.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10회의 전학급동료교수법 적용이 간호대학생의 학업성취, 셀프리더십 및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단일군 원시실험설계로 시행되었다.

2.1.2 연구대상

본 실험연구는 2017년 9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C도 내의 C대학교 간호학과 2학년 중 1개 분반 학생들로서 다음 선정기준에 부합한 자이다.

- 간호학전공과목 중 C학과목 수강자
- 본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내용을 이해하는 자
- 본 연구의 중재프로그램인 10주간의 전학급동료교수법에 대한 자세한 소개, 학습법 적용이 연구참여자에게 가져올 수 있는 유익, 수업에의 적용방법을 포함한 진행절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며, 수업에 적용할 의사가 있고, 실험처치 전후 설문조사

및 학업성취 평가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을 서면으로 동의한 자

- 연구대상자 표집 수는 G*power 3.1 program 으로 단일군 처치 전후 평균 비교에 적용을 위한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50, 검정력(1-β) .80 으로 설정 시 34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연구 시작 시 50명이었으나 2명이 10회의 처치 후 설문미비로 탈락하여 48명이 최종 연구대상자이었는데, 이는 적정표본수를 충족할 수 있는 표본 수이었다.

2.1.3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학습법으로 10회의 전학급동료교수와, 2회의 지필고사 및 셀프리더십과 대인관계능력측정을 위한 설문지로 구성되었다.

2.1.3.1 실험처치도구 : 전학급동료교수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들에 의해 수행된 학습법으로 2학점의 C학과목 수업 2시간 중 30~40분간 15주간 10회에 걸쳐 진행되었고 다음의 과정으로 구성되었다.

- 조 구성 : 본 연구 시작 직전학기에 연구대상자들이 이수한 간호학 전공기초과목 중 P학과목 성적을 기반으로, 각 조의 평균성적의 균일성 및 조원 간 대인관계에 갈등요소가 없도록 고려하였고, 5인 1조로 구성하였다.
- 교수법 내용 : 10회의 전학급동료교수법으로 모든 참여자는 지난 주 C학과목 담당교수자 강의내용을 숙지하고 수업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 교수자 훈련 : C학과목 담당교수는 매 수업 직후 수업의 핵심내용, 교수법 수행 시 주의점을 다음 주 교수자들에게 제공하였다.
- 학습과정
 - 매주 1인의 교수자와 4인의 학습자로 구성되며, 모든 구성원은 10회의 실험처치 중 교수자 2회, 학습자 8회의 역할을 교대로 수행하였다.
 - 교수자는 매 수업 직후 담당교수로부터 전달받은 핵심내용을 복습하여 다음 주 전학급동료교수 시 학습자들의 질문내용에 충분히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교수법을 수행하며 필요시 상호토론을 겸하여 진행할 수 있게 하였다.
 - 학습자는 전학급동료교수법 시간에 담당교수의 지난 주 수업내용 중 질문사항을 교수자에게 질문하

여 학습하도록 하였다.

- 평가 : 실험처치의 효과 강화를 위해 전학급동료교수법 수행 후 개인별평가, 동료평가 및 이해도 평가를 시행하였다.

2.1.3.2 처치의 효과 측정

- 학업성취

전학급동료교수 전반 5회 동안과 후반 5회 동안의 동료교수 내용범위 중에서 담당교수자가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관련 전공문헌을 기반으로 난이도를 동일하게 조절하여 개발한 평가지를 C간호학과목 전공교수 2인의 타당도 검증 후 사용하였다. 2회의 평가지는 각각 객관식 35문항으로 구성되었고, 평가 후 시행된 난이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5주차와 10주차에 시행된 평가를 각각 사전, 사후검사로 그 차이를 분석하였다.

- 셀프리더십

김민정(2007)이 번안한 Manz(1998)의 Self-Leadership Questionnaire(SLQ) 도구를, 이정선(2012)이 23문항으로 구성하여 대학생에 맞게 조정된 Likert식 5점 척도의 셀프리더십 측정도구로, 점수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음을 의미한다[1]. 이정선의 연구(2012)에서 Cronbach's α 는 .85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913이었다.

- 대인관계능력

Warner(2007)가 개발하였고 PSI 컨설팅이 번안한 도구를, 정태영(2011)이 수정한 총 15문항의 5점 Likert도구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 능력이 높음을 의미하고, 하위영역으로 타인기질, 의사소통 및 관계촉진의 각각 5문항씩으로 구성되었다[10]. 정태영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6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890이었다.

2.1.4 자료수집 및 분석

자료수집은 2017년 9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대상자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전학급동료교수법을 시행하기 전후, 일반적 특성, 셀프리더십과 대인관계능력으로 구성된 설문지로 사전검사를 시행하였고, 학업성취도는 전학급동료교수 시행 5주와 10주 후에 각각 측정하였다.

본 연구 시작 시 50명이 10회의 실험과 실험 전후 설문문에 모두 참여하였으나, 자료수집 후 작성된 설문지 검토과정에서 처치 후 불성실하게 작성된 설문 2부가 발견되어 이들 작성자 2인을 제외한 48명이 최종 연구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통계분석에서 각 집단으로 분배되는 집단별 대상자 수의 정규분포를 가정할 수 없어 집단별 평균순위와 처치의 효과 및 상관관계는 SPSS/WIN 19.0으로 비모수검정을 실시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특성은 기술통계로, 일반적특성에 따른 학업성취도, 셀프리더십 및 대인관계능력의 집단별 평균순위는 Mann-Whitney U와 Kruskal-Wallis 검정으로 구하였다.
- 전학급동료교수법이 셀프리더십과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Wilcoxon 부호순위 검정으로 구하였다.
- 실험 전후 학업성취, 셀프리더십과 대인관계능력의 상관관계는 이변량 상관계수로 Spearman's rho를 구하였다.

2.2 연구결과

2.2.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에서 보면 연구대상자 48명의 평균연령은 20.2±1.08세이었고, 그 중 여학생이 75.0%, 입학동기는 '적성에 따라'가 50.0%, 학교성적은 '중'이 50.0%, 성격유형은 '중간'이 50.0%, 리더십은 '중간'이 57.1%이었고, 토론선호도는 '낮음'이 54.2%로 가장 많았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48)		
Characteristics	Division	N (%)
Age(year)		20.2(1.08)*
Sex	Male	12(25.0)
	Female	36(75.0)
Motive of admission	to match Grade	4(8.3)
	to fit Aptitude	24(50.0)
	consider Job opportunity	20(41.7)
School grades	High	11(22.9)
	Medium	24(50.0)
	Low	13(27.1)
Personality type	Introverted	14(29.2)
	Middle	24(50.0)
	Extrovert	10(20.8)
Leadership	High	13(27.1)
	Medium	28(57.1)
	Low	7(14.3)
Discussion preference	Low	26(54.2)
	Medium	14(29.2)
	High	8(16.7)

* Mean(Standard Deviation)

2.2.2 실험처치 전후 변수들의 평균값

Table 2에서 보면, 처치 전후 학업성취의 평균값은 24.34±4.73점에서 28.27±4.93으로 증가하였고, 셀프리더십의 하위영역 중 인지적전략과 대인관계능력의 하위영역 중 관계촉진의 평균값이 각각 3.54±0.50점과 3.40±0.54점으로 증가하였다.

Table 2. Mean values of variables

Variables	Pre ¹	Post ²	
	M(SD)*		
Academic achievement	24.31(4.73)	28.27(4.93)	
Self-leadership	3.50(0.40)	3.61(0.46)	
	Behavioral strategy	3.67(0.43)	3.71(0.51)
	Cognitive strategy	3.39(0.46)	3.54(0.50)
Interpersonal ability	3.63(0.39)	3.60(0.43)	
	Consider others' temperament	3.94(0.41)	3.81(0.47)
	Communication	3.71(0.39)	3.59(0.51)
	Promoting relationships	3.24(0.65)	3.40(0.54)

* Mean(Standard Deviation)

¹ Pre-experiment

² Post-experiment

2.2.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변수들의 평균 순위값

Table 3에서 보면, 대상자의 일반적특성에 따른 변수들의 평균순위값 산출을 위해 시행한 Mann-Whitney 검정과 Kruskal-Wallis 검정결과, 실험 전후 대인관계능력에서 입학동기 중 '적성에 따라', 학교성적 중 '상', 성격유형에서 '내향적', 리더역량에서 '상'과 토론선호에서 '낮음'의 평균순위에 차이가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셀프리더십과 학업성취에서는 입학동기 중 '적성에 따라'의 평균순위값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2.2.4 가설검정 : 전학급동료교수법 적용이 학업성취, 셀프리더십 및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

Table 4에서 보면, 전학급동료교수법 적용의 효과를 보기 위한 Wilcoxon 부호순위 검정결과, 학업성취의 평균순위값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전학급동료교수법이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의 가설이 성취되었다($p < .001$). 전학급동료교수법 시행 전후 셀프리더십의 평균순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하위영역 중 인지적 전략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p = .020$), 대인관계능력에도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하위영역 중

Table 3. Mean ranks of variable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48)

Characteristics	Division	Academic achievement			Self-leadership			Interpersonal ability		
		Mean rank ^{***}	Z or χ^2	p	Mean rank ^{***}	Z or χ^2	p	Mean rank ^{***}	Z or χ^2	p
Sex [*]	Male	19.58	-1.409	.159	26.08	-4.53	.651	23.04	-4.18	.676
	Female	26.14			23.97			24.99		
Motive of admission ^{**}	to match Grade	31.00	6.465	.039	26.50	6.037	.049	29.75	2.706	.259
	to fit Aptitude	19.40			19.63			21.25		
	consider Job opportunity	29.33			29.95			27.35		
School grades ^{**}	High	26.55	2.768	.251	27.55	2.207	.332	21.23	1.038	.595
	Medium	26.54			25.69			24.63		
	Low	19.00			19.73			27.04		
Personality type ^{**}	Introverted	24.14	.145	.930	29.32	2.356	.308	22.11	.979	.613
	Middle	25.21			22.40			26.46		
	Extrovert	23.30			22.80			23.15		
Leadership ^{**}	High	23.15	.936	.626	20.77	3.312	.191	20.96	1.419	.492
	Medium	23.96			24.20			26.43		
	Low	29.14			32.64			23.36		
Discussion preference ^{**}	Low	24.42	.284	.868	27.08	4.841	.089	22.44	2.372	.305
	Medium	25.79			17.61			24.54		
	High	22.50			28.19			31.13		

^{*} Mann-Whitney U test

^{**} Kruskal-Wallis test

^{***} Mean rank of variables' differences between post and preexperiment

관계측진의 평균순위에 각각 유의한 차이를 보여 '전학급동료교수가 셀프리더십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와 '전학급동료교수가 대인관계능력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의 가설은 부분적으로 성취되었다($p=.040$).

Table 4. Effects of classwide peer tutoring on academic achievement, interpersonal ability and self-leadership

(N=48)

Variables	M(SD) [*]	Mean rank	Total rank	Z	p
Academic achievement	3.96(4.63)	13.36	93.50	-4.694 ^b	<.001
Self-leadership	2.42(9.15)	21.65	368.00	-1.887 ^b	.059
Behavioral strategy	0.33(4.17)	24.50	416.50	-.685 ^b	.493
	Cognitive strategy	2.08(6.38)	20.00	280.00	-2.334 ^b
Interpersonal ability	-0.96(7.32)	20.00	460.00	-.410 ^a	.682
Consider others' temperament	-.63(1.76)	14.50	188.50	-2.322 ^a	.020
	Communication	-.60(2.38)	14.53	261.50	-1.598 ^a
Promoting relationships	0.77(2.40)	15.33	230.00	-2.058 ^b	.040

^{*} M(SD) : Mean(Standard Deviation)

Wilcoxon Signed Ranked Test

^a based on negative ranks

^b based on positive ranks

2.2.5 실험 전후 학업성취, 셀프리더십과 대인관계 능력의 상관관계

Table 5에서 보면, 전학급동료교수법 시행 전후 조사한 학업성취, 셀프리더십 및 대인관계능력의 관계를 비모수로 이변량 상관분석 결과, 전학급동료교수법 시행 전후 셀프리더십과 대인관계능력 간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296, p<.041$).

Table 5. Correlations among differences of variables between post and preexperiment

(N=48)

Division	academic achievement	interpersonal ability
interpersonal ability	-.021 (.889)	
self-leadership	.117 (.427)	.296 [*] (.041)

^{*} $p=0.05$, Spearman's rho

3.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전학급동료교수학습이 학업성취, 셀프리더십 및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적성에 따라 간호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의 학업성취 평균순위값이 앞서 있었는데, 이는 유사한 연구가 없어 직접 비교할 수 없으나 중학생들의 적성과 학업성취도 관계의 연구에서 적성이 높은 과목의 학업성취도가 높았다는 연구결과는 비록 대상자에 있어 차이가 있지만, 최근 취업난으로 적성과 무관하게 간호학과에 입학하는 경향에 대해 간호학과 입학 전 진학지도 시 고려의 필요성을 시사한다[11].

본 연구결과 전학급동료교수 시행 전후 학업성취 평균순위값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유사한 중재인 동료교수학습을 시행했던 의과대학에서 3년간 졸업생들의 졸업반 실습성적의 후향적 분석 연구에서 동료교수자와 동료학습자의 성적을 비교한 결과, 동료교수자 성적이 동료학습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는 결과나, 협동동료교수 적용 후 학업성취도가 높았다는 연구와 유사한 결과였다[7,9]. 또한 동료교수자들의 성적이 전체 상위 1/4에 속했으며, 동료교수활동은 임상술기능력과 자신감을 증가시켰다는 연구결과가 있다[9,12]. 본 연구에서는 5인 1조로 구성된 팀에서 동료교수자와 동료학습자 역할을 교대로 시행하였으므로, 관련연구들에서의 동료교수자 역할에 따른 긍정적인 결과가 실험처치 전후 학업성취 평균순위값에 유의한 차이를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셀프리더십은 자기주도적으로 삶에 임하는 과정으로, 내면의 능력이 행동적전략과 인지적전략으로 표출되는데, 본 연구에서 실험처치 전후 셀프리더십은 각각 3.50 ± 0.40 점과 3.61 ± 0.46 점이었는데, 본 연구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조사한 4년제 대학생 대상의 연구에서의 셀프리더십인 3.73점보다는 낮은 점수였고, 셀프리더십 평균이 남학생 3.40점, 여학생 3.35점이었던 결과보다는 높은 점수였다[1,5]. 또한 일반적특성에 따른 비교에서 적성에 맞추어 간호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의 셀프리더십 평균순위값이 앞섰고, 실험처치 후 셀프리더십의 평균점수가 상승하였으나, 비모수검정에서 실험 전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셀프리더십의 하위영역 중 효과적인 사고력과 태도와 관련된 인지적전략의 평균순위값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p=.020$), 셀프리더십이 높은 집단의 문제해결능력과, 임상수행능력 및

비판적 사고능력이 유의하게 상승하였다는 결과나, 학과 성적이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았다는 결과와 맥을 같이 하므로, 본 연구에서 전학급동료교수학습이 부분적으로나마 셀프리더십을 유의하게 향상시켰다고 볼 수 있겠다[13,14].

본 연구에서 대인관계능력은 실험처치 전후 3.63 ± 0.39 점에서 3.60 ± 0.43 점으로 감소되었는데, 특히 하위영역 중 타인과의 관계에서 찾기 원하는 가치와 즐거움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타인기질이 유의하게 감소되었다($p=.020$). 이는 10주간 대상자들 간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전학급동료교수학습에서의 기대효과와는 전혀 다른 결과였는데, 효과적인 전학급동료교수 시행을 위해 간호대학생 상호간의 심한 경쟁적인 분위기에서 동료평가를 시행한 결과로 추측되며, 대상자를 달리고 실험처치 과정을 변경하여 반복연구를 시행함으로써 타인기질의 평균순위값 감소에 대한 원인규명이 필요하다. 대인관계능력의 하위영역 중 관계축진의 평균은 3.24 ± 0.65 점에서 3.40 ± 0.54 점으로 증가되었고, 비모수검정에서도 처치 전후 평균순위값의 변화가 유의하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p=.040$). 관계축진은 타인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으로, 전학급동료교수학습 중 활동의 결과로 나타난 부분적 효과라고 볼 수 있겠다[10]. 본 연구에서 실험처치 전 대인관계능력과 하위영역의 점수는 같은 도구를 사용한 간호사 대상의 연구에서, 대인관계능력 3.52점, 타인기질 3.70점, 의사소통 3.57점, 관계축진 3.29점을 보인 결과보다는 높았고, 기업종사자 대상의 연구에서 대인관계능력 및 하위영역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보인 결과보다는 낮았다[10,15]. 간호대학생이나 간호사들의 임상현장에서 필수적인 대인관계능력 향상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셀프리더십과 대인관계능력 간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학 연구에서 리더십프로그램 참여로 대인관계능력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는 연구결과나,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교과목 수업에서 집단활동을 통해 대인관계능력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는 연구보고와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5,16]. 대인관계능력은 스스로의 감성을 이해하고 조절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으로 대학생활 뿐 아니라 임상간호실무에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통해 효율적 간호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간호학 교육과정에서부터 대인관계능력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대

책이 필요하다[5,15].

본 연구에서 10주간 시행된 전학급동료교수법은 학업성취와 셀프리더십 및 대인관계능력에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에게 동료교수법을 적용한 결과 통상적인 학습법에서보다 심도 있는 학습을 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리더십과 사회화를 연습할 수 있었고, 전학급동료교수법이 임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학생들의 수동적인 자세를 능동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었으며, 임상술기의 정확도 증가 및 동료학생들 간 친밀감을 증가시켜 학업성취 및 대인관계능력향상에도 기여하여 간호학교육과정에서 전학급동료교수법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할 것이다[17-19].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10회의 전학급동료교수학습이 간호대학생의 학업성취와 셀프리더십 및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시행된 단일군 원시실험연구이다. 실험처치 중 2회의 학업성취평가와 실험처치 전후 구조화된 설문지로 셀프리더십과 대인관계능력을 평가하였다.

일반적특성 중 변수의 평균순위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간호학과 입학동기 중 '적성에 맞추어서' 이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 수가 48명으로 소수이고 집단 구분 시 정규분포를 가정할 수 없어 시행된 Mann-Whitney U Test, Kruskal-Wallis Test 및 Wilcoxon Signed Ranked Test 결과, 실험처치 전후 전학급동료교수학습은 학업성취에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p < .001$). 실험 처치 후 셀프리더십 점수는 상승하였으나 평균순위값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셀프리더십의 하위영역 중 인지적 전략의 평균순위값에 유의한 차이가 있어 전학급동료교수학습이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에 부분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20$). 처치 후 대인관계능력 점수에 감소가 있었고 평균순위값이 유의하게 저하되었으나, 대인관계능력의 하위영역 중 관계촉진의 평균순위값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p = .040$), 전학급동료교수학습이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모수 상관분석 결과 셀프리더십과 대인관계능력 간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r = .296, p = .041$).

본 연구 결과 전학급동료교수학습은 간호대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향상시켰고, 셀프리더십과 대인관계능력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중재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가 소수의 대상자로 이루어진 원시실험설계이고, 학업성취평가도구의 신뢰도나 타당도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점은 본 연구의 제한점이므로 향후 연구에서, 대상자수를 확대하고, 대조군을 설정한 유사실험연구를 반복적으로 진행하여 실험결과를 확인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REFERENCES

- [1] J. S. Yi & K. A. Kim. (2012). The Influence of University Student's Self-Leadership on the Employment Strategies.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6*(2), 19-39.
<http://www.earticle.net/article.aspx?sn=175537>
- [2] I. S. Jung. (2016). The Converging Effects of Complete Science Subjects in High School on the Grades of Basic Nursing Sciences and Major Nursing Subjects of Nursing Students of one University.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7*(5), 97-106.
<http://dx.doi.org/10.15207/JKCS.2016.7.5.097>
- [3] I. S. Jung. (2017). Convergence Research on the Studying Science Subjects before Entrance to Nursing department, the Scores of Basic Nursing Sciences and Academic Adjustment.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9), 117-125.
<http://www.earticle.net/article.aspx?sn=309108>
- [4] J. Y. Choi. (2016). *Study on Factors Affecting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Eulji University, Daejeon.
- [5] Y. S. Lee, S. H. Park & J. K. Kim. (2014). Nursing Students' Self-Leadership, Self-Efficacy, Interpersonal Relation, College Life Satisfaction. *The Korea Contents Society, 14*(6), 229-240.
<http://www.riss.kr/link?id=A100031648>
- [6] P. V. Broca & M. A. Ferreira. (2018). Nursing team communication in a medical ward. *Revista Brasileira de Enfermagem, 71*(3), 951-958.
DOI: 10.1590/0034-7167-2017-0208.
- [7] H. K. Cho & I. S. Jung. (2018). A study on the communication ability, general self-efficacy, social self-efficacy and academic achievement of nursing freshmen.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8*(3), 45-52.
<http://www.earticle.net/article.aspx?sn=331760>

- [8] Y. H. Kim, I. S. Kweon, K. D. Kim, K. M. Park, H. S. Park, H. S. So, W. S. Lee, K. S. Chang, B. R. Jeong & E. H. Choi. (2016). *Teaching and learning strategies : Cases in nursing education*. Seoul : Fomurse.
- [9] K. Iwata, D. S. Furnedge, A. Sturrock & D. Gill. (2014). Do peer-tutors perform better in examinations? An analysis of medical school final examination results. *Medical Education*, 48(7), 698-704. DOI: 10.1111/medu.12475.
- [10] T. Y. Chung. (2011).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Managers' Life-Long Education Coaching Leadership and Its Member's Problem Solving Ability and Interpersonal Ability*. Doctoral dissertation. Ajou University, Suwon.
- [11] S. H. Kim. (2002).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aptitude and academic achievement in middle school student*.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Seoul
- [12] C. L. Donohoe, J. B. Conneely, N. Zilbert, M. Hennessy, S. Schofield & J. V. Reynolds. (2015). Docemur Docemus: Peer-Assisted Learning Improves the Knowledge Gain of Tutors in the Highest Quartile of Achievement but Not Those in the Lowest Quartile. *Journal of Surgical Education*, 72(6), 1139-1144. DOI: 10.1016/j.jsurg.2015.07.001
- [13] K. E. Lee & E. H. Choi. (2017). Pre-Post Simulation Training on Problem solving, Performance confidence and Critical thinking Skill in Nursing Students according to Degree of Self-leadership.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Nursing Education*, 23(1), 66-75. <http://www.riss.kr/link?id=A102875984>
- [14] K. H. Kim & E. H. Hwang. (2016). Influence of Ego-Resilien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 Leadership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2), 436-445. <http://dx.doi.org/10.5762/KAIS.2016.17.2.436>
- [15] S. J. Lee. (2013). *Emotional intelligence,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Nursing performance among Clinical nurses*.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Suwon.
- [16] E. J. Bong. (2013) Effec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Communication Curriculum were utilized Group Activities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Communication Self-efficacy among Nursing Student. *The Korea Contents Society*, 13(10), 394-402. <http://www.koreacontents.or.kr>
- [17] M. Ravanipour, M. Bahreini & M. Ravanipour. (2017). Exploring nursing students' experience of peer learning in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Education and Health Promotion*, 4, May 2015. <http://www.jehp.net> on Thursday, July 27, 2017, IP: 210.125.253.4]
- [18] J. H. Tai, B. J. Canny, T. P. Haines & E. K. Molloy. (2017). Identifying Opportunities for Peer Learning: An Observational Study of Medical Students on Clinical Placements. *Teaching professionalism in undergraduate medical education*, 29(1), 13-24. DOI: 10.1080/10401334.2016.1165101. Epub 2016 May 4.
- [19] S. Sevenhuysen, M. K. Farlie, J. L. Keating, T. P. Haines & E. Molloy. (2015). Physiotherapy students and clinical educators perceive several ways in which incorporating peer-assisted learning could improve clinical placements: a qualitative study. *Journal of Physiotherapy*, 61(2), 87-92. DOI: 10.1016/j.jphys.2015.02.015. Epub 2015 Mar 21.

정인숙(In-Sook Jung)

[정회원]



- 1988년 3월 : Graduate School of AUP(Master of Science in Nursing)
- 2004년 8월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간호학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초당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아동간호, 기초간호과학, 간호교육방법
- E-Mail : irisjung@cdu.ac.kr